“우리 대학 특허기술 팝니다”

조선대 내달 1~3일 기술이전 박람회

‘우리 대학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팝니다’

조선대가 오는 2월 1~3일 첨단 산학캠퍼스에서 ‘2007 조선대 기술이전 박람회(Chosun Hope 2007)’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대학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 특허 이전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관 전시 등을 통해 모두 50건의 각종 기술이 선보인다.

특히 1일 오후 2시 개막식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산학캠퍼스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기술 설명회에서는 ▲광촉매 반응에 의한 용수 살균 방법 및 장치(김시욱 교수) ▲광전도체 소자를 이용한 독가스 탐지 센서개발(손홍래 교수) ▲혈전용해작용이 있는 동충하초 추출물 및 이로부터 분리된 혈전용해 효소(김성준 교수) 등 10건에 대한 설명과 상담회가 진행된다.

박람회 이튿날인 2일 오후 3시에는 첨단 산학캠퍼스 세미나실에서 기술보증기금 정태환 박사가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를 통한 금융지원’을 주제로 강연하며 오후 4시에는 텔타텍 코리아 이승호 대표가 ‘대학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장우양 조선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기술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부 등에서 11개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특허 등록 32건, 기술이전 20건, 기술료 수입액 2억3천900만원, 국가기술은행(NTB·National Technology Bank) 등록기술 157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전교조 교사 300여명 강제 전보

내달 인사때 연가투쟁 징계자 대상…승급·승진도 제한

金교육 “집단행동 불허”

집단 연가투쟁에 참가했다가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당분간 승급 및 승진이 힘들어지고 다음달 정기인사 때 강제 전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인 2천286명 가운데 2000년 이후 연가투쟁 전력이 3회 이상인 1천850명에게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4회 이상 참가자 436명 중 203명에게 감봉(5명)이나 견책(132명), 불문경고(66명) 조치를 취했다.

아직까지 미처리한 징계대상자 173명 중 사립학교 교사 39명과 해외체류 중인 17명을 제외한 117명의 징계 절차를 다음달 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징계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이번에 징계받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징계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연금법시행령 등을 근거로 엄격하게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1~2개월의 감봉을 받은 5명은 12월+감봉 처분 기간 동안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감봉 처분 기간에 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특수지 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등을 포함한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된다.

견책을 받은 132명은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며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상당수 시·도교육청들이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을 ‘비정기 전보인사’대상으로 분류해오고 있어 연가투쟁과 관련해 징계받는 교원들은 3월1일부터 시작하는 신학기에는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 참가 횟수가 3회 이하여서 경고나 주의를 받은 교사 1천850명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전교조 교사 중 경고(3명)와 주의(8명)를 받은 교사는 11명이다.

한편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앞으로도 교원단체들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할 계획이나 불법 집단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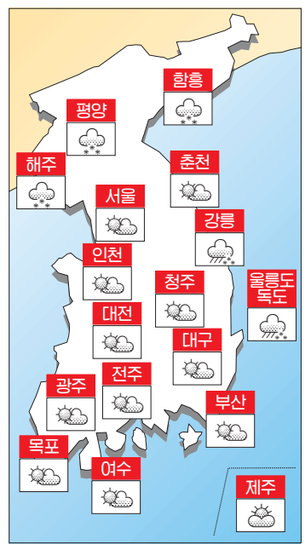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반가운 햇살

맑은 후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다.

1월 29일 (음 12월 11일) ◇전국날씨

광 주	맑은 후 흐려짐	-3~7℃
목 포	맑은 후 흐려짐	-1~7℃
여 수	맑은 후 흐려짐	-1~7℃
완 도	맑은 후 흐려짐	-1~8℃
구 례	맑은 후 흐려짐	-5~8℃
해 남	맑은 후 흐려짐	-5~8℃
장 흥	맑은 후 흐려짐	-5~8℃
고 흥	맑은 후 흐려짐	-3~8℃
순 천	맑은 후 흐려짐	-5~7℃
영 광	맑은 후 흐려짐	-3~7℃
진 도	맑은 후 흐려짐	-3~7℃
전 주	맑은 후 흐려짐	-3~7℃
남 원	맑은 후 흐려짐	-6~7℃
정 읍	맑은 후 흐려짐	-3~6℃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 11:13 22:53 썰물 〈 03:19 17:01
여 수 밀물 〈 06:43 18:36 썰물 〈 13:04 --:--

▲해뜸 07:34 ▲해짐 17:57 ▲달뜸 13:48 ▲달짐 04:2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화)	31(수)	2/1(목)	2(금)	3(토)	4(일)
날 씨						
최저/최고	-1/5	-4/1	-5/1	-4/3	-3/6	-2/8

영산호 교량공사 환경피해 최고 배상

지난해 1억4,595만원

지난해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에 관한 분쟁 중 개별 사건의 최고 배상 결정액은 영암군 영산호 교량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영암 영산호 교량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향어 양식장 피해에 대해 1억4천595만원의 배상액이 결정됐다.

전국적인 총 배상 결정액은 총 15억7천798만원으로 ▲2005년 25억6천688만원 ▲2004년 26억4천504만원에 비해 40%가량 대폭 감소했다.

신청 사건당 평균 배상액도 지난해 2천545만원으로 ▲2005년 3천468만원 ▲2004년 3천306만원에 비해 크게 낮았다. 분쟁위는 배상 신청액을 턱없이 부풀린 사례가 많았고 더 엄격한 조사가 이뤄져 실제 배상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분쟁 신청 사건은 202건(이월포함 276건)으로 2005년 166건(이월포함 266건)에 비해 24%가량 증가했다.

이중 처리가 결정된 것은 165건으로 ▲소음과 진동 피해 150건(86%) ▲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 8건(5%) ▲수질오염 3건(2%) 등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징병검사 오늘부터 시작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올해 징병검사가 29일부터 시작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 징병검사 대상자는 올해 만 19세가 되는 1988년도 출생자와 1987년 이전 출생자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이며 전년보다 약 5천여 명이 증가한 31만4천여 명이다.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 사정에 따라 다른 징병검사 일자 또는 장소에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학생·학원 수강생·직장인들도 검사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중생 3명중 2명

“대입논술 준비중”

초·중학생의 3분의2 이상이 대입논술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논술 준비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학습지 전문업체 ㈜노벨과개미와 ㈜교수닷컴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논술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9명 가운데 67%인 426명이 ‘현재 논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논술 준비를 하는 초·중생 426명 중 48%(206명)가 ‘학습지와 논술책 등을 이용한다’고 답했고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준비한다’는 응답도 20%(84명)에 달해 논술 사교육 열풍이 고교생 못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수업을 이용한다’는 학생은 20%(85명), ‘독학 또는 독서 등으로 대비한다’는 답변은 12%(51명)였다. ‘논술이란 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글쓰기(36%) ▲독서(31%) ▲토론(15%) ▲시험(14%) 등 답변이 나왔다.

/황태종기자 hwangtae@

무등산 ‘눈꽃 세상’ 주말과 휴일 4㎝의 눈이 내린 무등산 원효사 입구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꽃이 내려앉았다. 휴일인 28일, 무등산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6.9도까지 떨어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2만5천여 명의 등산객이 몰려 상고대와 설경을 즐겼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무등산·금당산 ‘강산성 토양’

국내 산 14% 해당…식물 생육 부진 등 초래

광주 무등산, 광양 가야산 등 우리 산의 14%가량이 강산성 지역으로 조사돼 토양 산성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산지보전협회에 따르면 2005~2006년 전국의 주요 46개 산, 356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7개 지표를 통해 산림건강 모니터링을 시범실시한 결과 평균 pH 4.97로 조사돼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pH 5.5에 비해 산성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pH 4.5 이하의 강산성 지역은 14%에 달했으며 광주 무등산·금당산, 광양 가야산, 청주 상당산, 전주 모악산, 서울 인왕산·도봉산·인천 청량산, 서울 한강 주변 산림 등 대도시 주변에 밀집됐다.

특히 서울 인왕산 침엽수림 지역은 pH 4.00으로 측정돼 산성화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제주 활엽수림(pH 5.85)이었다. 토양이 산성화될 경우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부족해 지면서 식물 생육 부진과 토양 미생물 감소, 종 다양성 저하 등 건강성을 크게 해치게 된다.

나무의 외형적 모습을 관찰해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수관활력도를 통해 조사한 숲의 건강지수는 1등급(건강)이 51%였으며 2등급(경쇠퇴) 30%, 3등급(중쇠퇴) 10%, 4등급(심쇠퇴) 2%, 5등급(사망) 7% 등이었다.

전체 조사지역 평균치는 1.856으로, 우리 숲이 대체로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쇠퇴에 가까워 더 늦기 전에 건강성 유지를 위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보호관찰소 1위

법무부, 기관 평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홍)는 지난해 법무부가 전국 37개 보호관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보호관찰소는 그동안 ▲금연캠프 등 전문처우 프로그램 운영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 ▲혁신추진실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999년부터 전국 37개 보호관찰 기관을 기관 규모에 따라 ‘가’, ‘나’, ‘다’군으로 나눠 ▲기관 운영실태 ▲업무처리 실적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해 오고 있으며 광주보호관찰소는 이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